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402.9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60원 상승한 1,402.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20원 상승한 1,405.5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초반 레벨 부담에 따른 달러 매도세에 1,401원까지 하락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달러 강세에 연동되어 낙폭을 일부 되돌렸으며 1,400원 초반의 박스권을 횡보하며 1,402.9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4.5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05.50	1442.00	1400.50	1402.90	1403.40
	엔화	937.09	968.62	932.90	938.56	-
	유로화	1471.36	1514.40	1465.26	1474.1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6	-6	-13.77	-28.87
	결제환율(수입)	-1.43	-5.03	-11.91	-25.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비상계엄 파장에...1,42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02.90) 대비 12.90원 상승한 1,414.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화 약세에 상승이 예상된다. 전일 23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즉시 가결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여 4시 30분을 기점으로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환율은 계엄선포 이후 1,440원대까지 돌파했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상황까지 반영한 새벽 2시 1,425원에 마감했다. 이번 사태로 향후 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됨에 원화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원화 자산 투심 악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금일 환율은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당국은 긴급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일 오전 예정된 임시 금통위와 장중 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확인될 경우 환율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험회피 심리 고조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진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09.80 ~ 142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645.1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85원 ↑
	■ 美 다우지수 : 44705.53, -76.47p(-0.1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2.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38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